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도자료

보도

2018. 11. 5(월) 14:00부터

배포

2018. 11. 2(금)

책임자

금융정책실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임준 연구위원(3775-9044)

홍보담당

최원 선임연구원(3775-9057)

총 6매

보험연구원, 「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」 국제심포지엄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은 11월 5일(월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「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」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
-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·일본·중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보험산업 및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함
- 미국 St. John's 대학의 권육진 교수는 제1주제 『보험의 사이버-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』 발표를 통해 사이버위험의 특성 및 사이버보험 상품의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음
- 일본 MS & AD* InterRisk Research & Consulting의 도이 다케시 시니어 매니저는 제2주제 『일본의 사이버보험』 발표를 통해 MS & AD의 사이버위험 평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,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음
- * 구(舊)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
- 중국 Gen Re China의 Frank Wang 언더라이팅 디렉터는 제3주제 『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현황 및 발전전략』 발표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사고동향, 법률 환경, 가계성 사이버보험 상품 등에 대해 소개하였음

-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제4주제 『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』 발표를 통해 기업시장, 가계시장, 공공부문별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음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
- 패널 토론에서는 경희대 이봉주 교수(좌장)와 발표자, SK인포섹 강용석 본부장, 보험개발원 김성호 부문장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현 프로젝트리더, 한양대학교 심현우 교수, 한화손해보험 최용민 상무가 참여하여 발표 주제들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하였음

〈주제발표 1 : 보험의 사이버-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〉

St. John' s University 권욱진 교수

사이버보험 상품의 표준화와 세분화 필요

- 미국의 단독형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5억 달러이며,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%씩 성장함
 - 산업별로 사이버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, 금융기관(29%), 유통(21%), 의료(15%)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- 보험회사 및 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, 현행 사이버보험 약관의 경우 용어 정의 등에 있어서 표준화가 미흡함
 - 향후 사이버보험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통일 등 표준화가 필요함

- 사이버보험의 경우 아직 시장초기 단계에 있으며, 사고원인별 또는 피해유형별로 세분화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는 아님
 - 사고원인으로는 인간의 실수, 의도적인 공격, 기계 오류 등이 해당되며, 피해유형 또한 재산피해, 신체상해, 영업중단 등으로 다양함
 - 향후 사이버보험 시장은 사고원인별, 피해유형별로 상품이 보다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

〈주제발표 2 : 일본의 사이버보험〉

MS & AD Takeshi Doi 시니어 매니저

일본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

-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88억 엔을 기록함
 - 2014년의 105억 엔과 비교할 때 약 80%의 성장률 기록함

- 2018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약 664개의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
 -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12.3%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, 10.4%는 향후 가입할 계획이고, 나머지 77.3%는 향후에도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함
 - 향후에도 가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의 경우 약 35.6%가 사이버보험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, 26.1%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
 - 필요한 사이버보험 담보와 관련해서는 배상책임(Liability)이 63.0%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, 다음이 복구비용으로 58.6% 차지하였음

- MS & AD는 보안업체인 Verison, BitSight 등과 제휴하여 사이버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함

〈주제발표 3 :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현황 및 발전전략〉

Gen Re China Frank Wang 언더라이팅 디렉터

중국의 가계성 사이버보험 사례

-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상황은 사이버 공격 증대로 인해,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중국은 랜섬웨어 공격 발생 건수, 스팸 이메일 수신 비율, 모바일 멀웨어 공격 발생 건수에 있어서 모두 상위 2위권(2017년 기준)을 기록함
 - 2017년 6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「사이버보안법」 시행함

- 중국에서는 다양한 가계성 사이버보험이 판매되고 있음
 - 개인은행계좌손실배상보험
 - 중국태평양보험회사(CPIC)에 의해 개발되었으며, 타인의 도용, 불법복제, 협박에 따른 은행계좌 및 비밀번호 유출로 발생한 자금손실을 보장함
 - 가상재물손실배상보험
 - 중국태평양보험회사(CPIC), 중국인민재산보험회사(PICC) 및 중국온라인게임 서비스연맹(COGSA)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으며, 타인의 도용 및 해킹에 따른 온라인게임의 계정, 장비, 아이템, 가상화폐 손실을 보장함
 -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배상보험
 - 중안보험회사(ZhongAn Insurance) 및 중국 검색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으며, 모바일 바이러스,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자금손실을 보장함

〈주제발표 4 :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〉

보험연구원 임 준 연구위원

기업시장, 가계시장, 공공부문별 향후 정책과제

- 국내 사이버보험의 경우,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가입률이 저조함
 -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는 의무화 도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음
 -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,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같은 대안 검토가 필요함

-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
 -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, 단독형 사이버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함
 - 단독형 사이버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의 부가상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될 수 있음

-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 가운데 하나임
 - 그 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으나,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된 위험재무 전략은 미흡했었음
 -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한데, 민영보험회사로 위험을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